

다차원 척도 분석으로 해석한 ‘看’의 다의적 의미관계*

李正心**

◁ 목 차 ▷

- I. 들어가며
 - 1. 모든 단어는 본질적으로 다의적
 - 2. 선행연구의 흐름
- II. ‘看’의 언어자료 분석
 - 1. ‘看’의 사전적 의미
 - 2. ‘看’의 실제 용례에 대한 언어자료 분석
- III. ‘看’ 의미들 간의 상관성
 - 1. 설문조사 자료 처리
 - 2. 다차원 척도 분석으로 해석하기
- IV. ‘看’의 의미 범주와 범주화 과정
 - 1. ‘看’의 범주원형
 - 2. ‘看’의 네 가지 의미 범주
- V. 나가며

I. 들어가며

1. 모든 단어는 본질적으로 다의적

1970년대 이후 인지언어학이 형식주의 언어학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이후, 인지언어학은 언어를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¹⁾ 인지적 접근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35C-2011-2-A00572)

** 성균관대 중문과 초빙교수

1) 인지언어학의 태동을 알리는 논문은 Fillmore(1975), Lakoff & Thompson(1975),

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Linguistic knowledge is part of general cognition.(언어적 지식은 일반적 인지의 일환)”이라는 인지언어학의 기본 명제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언어의 이해와 사용은 지각, 개념체계, 신체화된 경험, 세상사의 지식, 문화적 배경 등의 일반적 인지능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²⁾ 인지의미론(Cognitive semantics)은 의미의 문제를 인지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려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객관주의적 의미론의 핵심 개념인 진리조건적 의미론(Truth-Conditional Semantics)과 대조를 이룬다. 객관주의적 의미론에서 진리(truth)란 상징기호, 즉, 단어와 실제세계와의 대응관계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객관주의적 의미론에서는 객관세계를 직접 인식하고 이를 언어기호로 환원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인 인간의 역할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인지의미론의 기본 개념은 Lakoff(1986, 1987), Langacker(1987, 1990, 1991)에서 정립되었다.³⁾ 그들은 종래의 객관주의적 의미론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해석하였다.⁴⁾ 인지의미론도 객관주의적 의미론처럼 의미를 단어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규명하고자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세계란 단순히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세계만이 아니었다. 인지의미론에서의 세계란 인간이 경험적으로 인지한 세계 때로는 경험을 기반으로 상상한 세계까지도 포함한다. 즉,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세계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객관주의적 의미론에서는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것과 달리 인지의미론에서

Rosch(1975)를 들 수 있다. 임지룡 재인용, 〈인지의미론 연구의 현황과 전망〉: 《우리말연구》 2007년 21집, 52쪽 참조.

2) 임지룡 《인지의미론》(서울, 탑출판사, 1997), 21쪽 참조.

3) 인지의미론(Cognitive semantics)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G. Lakoff(1986)이다.

Lakoff, G. 〈Cognitive Semantics〉: 《Berkeley Cognitive Science Report》 1986. 36.

임지룡 재인용 《인지의미론》(서울, 탑출판사, 1997), 27쪽 참조.

4) I see the cat on the mat.

I see what you mean.

이 두 문장의 see는 진리조건적 의미론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진리조건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두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한 see의 진리조건은 동일할 수 없다. 따라서 형식주의 입장에서는 see의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see1, see2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진리조건을 부여하여 설명하였다. 따라서 see1, see2의 의미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는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인지의미론에서는 인간의 신체적 경험이 세계를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보고, 이로부터 우리의 사고와 언어는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객관적인 실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지하는 주체에 따라 인지되는 대상은 다양하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언어기호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reference)일 수가 없으므로, 언어기호를 사용하여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은 손으로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라 인식했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인지의미론에서는 한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에는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적인 의미 외에 각 개인의 머리 안에 들어있는 백과사전적 의미도 들어가 있으며 이렇게 각 개인의 경험을 개념화한 것이 바로 단어의 의미이기 때문에 심리나 감정적인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⁵⁾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단어는 본질적으로 다의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어는 발화, 사회, 문화적 문맥이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 지에 따라 절대로 한 가지 의미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지의미론의 영역 가운데 주된 관심은 다의관계(polysemy)에 관한 연구이다. 유한한 언어 자원으로 무한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다의관계는 언어사용자의 기억 부담을 줄여 주는 매우 효율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만 말한다면, 다의관계는 하나의 어휘항목(lexical item)이 둘 이상의 관련된 의미(sense)를 지닌 관계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하나의 어휘항목이 단일 범주에 속하는지 다의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⁶⁾ 이에 관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우선은 접어두기로 한다.

인지의미론에서는 다의관계를 만드는 원리를 의미확장(extended meaning)과 원형범주(prototype category)라고 본다. 인간은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에 직면할

5) 김진우 《인지언어학의 이해》(서울, 한국문화사, 1999), 25쪽 참조.

6) 이론적으로는 단의어와 다의어의 구분이 뚜렷하지만, 많은 경우에 개별 어휘의 다양한 용법이 단일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둘 이상의 다의적 의미를 나타내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여러 종류의 사전을 놓고 살펴보면 동일한 어휘항목에 대해 표제어 항목 선정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전 안에서도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다의적 의미에 대한 구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관해 임지룡(2009)은 「다의어의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한 가지 방식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또 다른 방식은 기존 단어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⁷⁾ 이 가운데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을 기존 단어에 적용하여 의미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의미확장이다.

고전적인 범주이론에서는 범주의 경계가 명확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떤 개체는 어떤 범주이거나 또는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분법은 한 범주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은 일정한 특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즉, 다른 범주와 구분되는 해당 범주만의 고유한 특질을 그 범주의 구성원 모두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하므로 한 범주에 속한 구성원들은 그 범주에서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 범주관은 크게 두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선, 범주 경계의 모호성이다. 예를 들면, 대머리라는 기준은 머리카락이 몇 개인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같은 대머리라도 탈모의 정도는 모두 다른데 고전적 범주이론에서는 대머리와 대머리가 아닌 경계를 설정하기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Wittgenstein(1953)에 의해 제기된 '게임이론'으로 범주의 구성원 간에 모두 공유되는 공통 속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⁸⁾ 게임은 단지 가족 닮음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갖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가족 구성원이 모두 닮은 것 같아도 모든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는 어떤 공통적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구성원이 서로 중첩되고 교차되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의 유사성을 통하여 한 가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범주 구성원끼리는 공통 속성을 갖는다는 고전적 범주이론에 대한 반론이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게임이론에 적용할 수 있다.⁹⁾

7) 임지룡 《인지의미론》(서울, 탑출판사, 1997), 238쪽 참조.

8) Wittgenstein(1953)의 '게임이론'은 게임 중에는 판을 사용하는 게임, 카드를 사용하는 게임, 공을 사용하는 게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 전부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테니스와 체스를 비교하면 일대일로 승부가 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기에 트럼프까지 함께 보면 승부가 난다는 것은 같지만 반드시 일대일은 아니다. 또 벽에 공을 치는 스쿼시 같은 게임은 테니스와 비슷해 보여도 승부가 난다는 속성은 없다.

9) 게임이론을 언어활동에 적용하면, 언어활동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게임이며, 같은 단어라도 쓰이는 환경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스승이 제자에게 기침을 하며 '창문'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단순히

이러한 문제 제기를 거쳐 범주 이론은 패러다임적 변화를 겪는다. Rosch(1975)는 실험을 통해 기존의 고전적 범주이론에 대응하는 원형 범주이론을 제시하였다. Rosch의 원형 이론을 바탕으로 범주 내의 구성원들 사이에 전형성 정도의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개체들도 그 범주의 전형적인 구성원인지 아닌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¹⁰⁾

‘원형’은 그 범주에 속하는 사례들이 평균적으로 가진 속성의 집합이다. 이 말은 범주에 속한 사례들은 원형과 유사한 정도에 있어서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전형성’이라고 한다. ‘새’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아마 날개와 깃털이 있고 하늘을 나는 가장 전형적인 새를 떠올릴 것이다. 이것이 새라는 범주의 원형이다. 하지만 새라는 범주에는 속하지만 원형과는 다소 동떨어진 사례들도 있다. 가령, 펭귄은 새는 맞지만 원형과 한참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전형성이 낮다. 이러한 범주관은 필요충분 조건적이라고 하는 공통적 특징에 의해 범주를 정의할 수 있다는 고전적 범주의 정의와는 크게 다르다. 왜냐면, 다른 범주와 대립하는 공통적 속성의 집합에 의해 어떤 범주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유사점을 중복해서 갖고 있는 사례가 그 범주를 대표하는 원형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단어가 지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은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전의 정의를 보면 하나의 단어가 지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은 서로 상관이 없는 듯이 나열되어 수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한 단어가 지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다의어의 여러 가지 의미 변이형들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들 사이

창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추우니 창문을 닫으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렇게 언어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따라서 언어가 의미가 있는 것은 단순히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이 아니라, 게임에서 마음대로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가 사용되는 세계의 다양한 삶의 양식이라는 규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 10) Rosch는 실험을 통해 범주의 구성요소가 동등한 자격을 갖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실험 참가자 200명에게 10개의 범주 목록을 제시하고 각 범주 안에 사례들의 전형성에 대해 등급을 매기게 했다. 그는 실험을 통해 범주 안에는 좋은 예와 나쁜 예가 혼재하며 범주 경계 또한 명확하지 않음을 증명했다. Rosch, E.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semantic categ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975, General 104, 192-233쪽 참조.

를 연결 지어 주는 매개체는 무엇인가?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다의어는 왜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는 것일까?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여러 감각적 경험 중에서 높은 사용 빈도수를 보이며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는 동사 ‘看’을 대상으로 통계기법인 다차원 척도 분석을 통해 다의적인 의미 양상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인지적 관점에서 중국어 동사 ‘看’의 다의적 의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사유 활동과 인지가 언어 기호 생성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둘째, 동사 ‘看’ 의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다의어의 여러 가지 의미 변이형들의 범주화 현상과 의미확장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2. 선행연구의 흐름

본고는 여러 감각적 경험 중에서 다양한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는 동사 ‘看’을 대상으로 그것이 지닌 다의적인 의미 양상을 인지적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어 동사의 다의 현상과 의미확장을 논한 것으로는 임지룡(2001), 장미라(2005), 변영수(2007), 정병철(2007a), 이민우(2008), 이경수(2009)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임지룡(2001)은 동사 ‘사다’와 ‘팔다’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를 통해 두 동사의 의미구조를 밝히고 다의어가 구조적, 빈도적, 인지적으로 비대칭성을 가진다고 했다. 장미라(2005)는 동사 ‘있다’의 10가지 다의적 의미를 제시하면서 구문 내 성분들의 의미적 특성과 상호 관련성을 통사적 특성과 함께 논의함으로써 다양한 ‘있다’가 의미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변영수(2007)는 주어와 객체어의 의미자질에 따라 ‘오르다’는 21가지의 의미를 갖고 주어와 객체어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기본의미에서 변이의미로 확장된다고 했다. 정병철(2007)은 경험적 상관성에 기반한 동사의 의미 변화가 문장의 통사적인 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했다. 이민우(2008)는 동사 ‘지다’의 다의성을 말하면서 원형을 설정하기보다는 의미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중심으로 의미확

장을 논하였다. 이경수(2009)는 동사 '지르다'의 새로운 의미 획득현상이 기존의 언중들에 의해 쓰이던 의미들과 어떻게 상관성을 갖게 됐는지 구문구조와 관련하여 논하였다.

영어에서 다의성 동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의로는, Sweetser(1990), 지인영(2003), 김명숙(2006) 등이 있다. Sweetser(1990)는 영어 지각동사의 의미변화에 대해 어원적 연구를 하여 원래의 구체적인 의미가 후대에 와서 추상적인 의미로 바뀌는 역사적 변화를 겪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미변화의 역사적 연구는 의미변화의 일정한 방향성을 확인시켜 주면서 동시에 다의어 의미변화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¹¹⁾ 지인영(2003)은 see의 의미를 신호과정과 상징과정으로 분류하고 see의 의미확장이 신호과정 단계에서 상징과정 단계로 진행된다고 했다. 김명숙(2006)은 break가 지니는 여러 가지 의미 변이형들 사이의 범주화 관계를 다양한 인지과정과 관련지어 도식관계로 나타내었다.

한국어나 영어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중국어 연구에서 다의성을 갖는 동사를 인지적 관점에서 논한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다.¹²⁾ 그 중 박종한(1997)은 동사 '過'의 의미확장, 방향보어 '過'의 의미확장 과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정희(2007)는 중국어 '吃'와 한국어 '먹다'를 비교하며 기본의미, 확장의미, 확장기제를 논하였다.

동사의 다의 현상과 의미확장을 논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원형의미를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으로부터의 확장의미를 설명하는 방법이다. 즉,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주변의미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으로 다의어

11) 지인영 재인용, <영어지각동사의 다의성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2003년 제47권 1호, 188쪽 참조.

12) CNKI에서 2000년-2014년 논문 가운데 주제어를 '認知'와 '多義'로 넣고 검색한 결과, 中文核心期刊에 수록된 논문은 다음 몇 편이었다.
白解紅 <多義聚合現象的認知研究>; 《外語與外語教學》 2001年 12期.
劉佐艷 <從認知角度看多義現象>; 《外語研究》 2002年 5期.
郭家翔 <說 '上來'>; 《語言研究》 2002年 1期.
於海濤 <多義範疇理解的語義互參模式>; 《語言教學與研究》 2003年 4期.
林正軍 <一詞多義現象的歷時和認知解析>; 《外語教學與研究》 2005年 5期.
邵敬敏, 周娟 <動+介+賓'結構的語義模式及認知場景>; 《語言教學與研究》 2008年 3期.

를 기술한다. 다른 하나는 원형을 설정하기보다는 의미가 하나의 범주로 인식되었을 때 그것의 유사성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논하는 방법이다.

본고는 동사 ‘看’의 다의적 양상을 살펴봄에 있어 후자의 방향을 고려하였다. 즉, 원형과의 유사성을 통해 방사상으로 의미가 확장해 간다고 하는 기존의 방향보다는, 각각의 의미들이 자체로 존재하고 그 의미들이 하나의 범주 속에서 인식된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의미들 간의 유사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는 의도이다.

II. ‘看’의 언어자료 분석

본 연구는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다양한 의미로 파악되는 동사 ‘看’ 의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동사 ‘看’의 다의적 의미를 수집하기 위해 사전에 기술된 의미와 언어자료에서 문맥으로 실현된 의미들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파악된 다의적 의미들 사이의 상관성을 알기 위해 중국인 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그런 다음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언어 사용자가 각 의미들 사이의 관련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다차원 척도 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이라는 통계기법을 이용하였다.¹³⁾ 다차원 척도 분석은 개체 간 근접성(proximity)을 시각화하기 위한 통계기법으로, 개체 간의 유사성 정도에 의거해서 개체를 다차원 공간 속에 배치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평가 대상 a, b 간의 유사성을 다차원 공간의 거리 D로 환산하여 좌표상에서 위치를 찾는 모형이다. 즉, 좌표 X는 각 대상들

13) 다차원 척도 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유사성 또는 선호도 자료에 기초하여 공간상에 벡터(Vectors) 또는 점(Points)으로서 그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원래 계량심리학 분야에서 발전되었으나 1970년 전후로 마케팅 조사자들이 제품 포지셔닝(positioning)을 목적으로 응답자들의 제품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여 시장세분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급속히 발전되어 온 개념이다. 다차원 척도 분석법은 각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의 기준이 되는 차원을 찾아내고, 각 차원 위에서 평가 대상들의 위치를 규명함으로써 피조사자의 심리적 평가공간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기법이다.

이 위치하는 공간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좌표점으로 이 좌표점 간의 거리가 멀수록 조사 대상자는 평가 대상들에 대해 서로 상이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좌표점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각 대상들의 유사성 정도는 커지게 된다. 즉, 대상들의 공간상의 위치에 따라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조사 대상자의 수량화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평가 개념을 공간상의 거리로 유추할 수 있다는 장점이 특징이다.

본고에서는 언어자료 분석을 통해 문맥에서 선택되는 '看'의 의미를 파악하여 설문조사 대상자들에게 제시한 후,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주어진 의미를 토대로 각 의미들 간의 상관관계를 점수화하여 이를 다차원 척도 분석 방법으로 공간 위에 표시하였다. 이렇게 하면 '看'의 다양한 각 의미들 간의 상관성이 공간 위에 거리 개념으로 환산되어 나타내질 수 있다.

1. '看'의 사전적 의미

《現代漢語規範用法大詞典》에 기술된 '看'의 의미와 용례는 다음과 같다.¹⁴⁾

- | | |
|----------------|--------------------|
| (1) 使視線接觸人或物 | 例: 看了一會兒電視 |
| (2) 觀察, 估計, 判斷 | 例: 看別人的顏色 |
| (3) 看望 | 例: 老人沒什麼大病, 你不必去看了 |
| (4) 診治 | 例: 有病要及時看 |
| (5) 決定於 | 例: 勝負就看這一回 |
| (6) 留神, 注意 | 例: 別亂跑, 看車 |

《現代漢語詞典》에 수록된 '看'의 의미와 용례는 다음과 같다.¹⁵⁾

- | | |
|--------------|--------------|
| (1) 使視線接觸人或物 | 例: 看書 / 看電影 |
| (2) 觀察并加以判斷 | 例: 我看他是個可靠的人 |
| (3) 訪問 | 例: 看望 / 看朋友 |
| (4) 對待 | 例: 看待 / 另眼相看 |

14) 《現代漢語規範用法大詞典》北京, 學苑出版社, 1997.

15) 《現代漢語詞典》北京, 商務印書館, 2002.

- (5) 診治 例: 王大夫把我的病看好了
 (6) 照料 例: 照看
 (7) 用在表示動詞或變化的詞或詞組前面, 表示豫見到某種變化趨勢, 或者提醒對方注意可能發生或將要發生的某種不好的事情或情況
 例: 別跑! 看揸着!
 (8) 用在動詞或動詞結構後面, 表示試一試
 例: 想想看 / 找找看

두 사전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看'에 대한 의미항목 수록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¹⁶⁾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看'은 본동사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하므로 《現代漢語詞典》(8)번 의미항목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現代漢語規範用法大詞典》과 《現代漢語詞典》을 기준으로 본동사 '看'의 사전적 기술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使視線接觸人或物
- (2) 觀察, 估計, 判斷
- (3) 看望, 訪問
- (4) 診治
- (5) 決定於
- (6) 留神, 注意
- (7) 對待
- (8) 照料

2. '看'의 실제 용례에 대한 언어자료 분석

어휘의 구체적인 의미는 통합적 결합관계를 통해서 획득하게 되므로 어휘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결합관계가 주어져야만 한다. 이것은 단어가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와 결합했을 때만이 그 의미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16) 《漢語大詞典》은 상기 두 사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13가지 의미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漢語大詞典》北京, 漢語大詞典出版社, 1997.

①探望, 問候 ②以視線接觸人或物 ③觀察, 估量 ④對待, 看待 ⑤款待 ⑥照料, 料理 ⑦觀賞, 賞玩 ⑧診視疾病 ⑨揀, 選擇 ⑩聽見, 聞見 ⑪取決 ⑫提醒對方小心注意之詞 ⑬用在動詞或動詞結構後面表示先試試之意

본고는 동사 '看'의 실제 용례에 대한 언어자료 분석을 위해 중국 드라마 '別了, 溫哥華'에서 그 용례들을 추출하였다.¹⁸⁾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언어자료로 채택한 드라마 '別了, 溫哥華'에서 《現代漢語規範用法大詞典》, 《現代漢語詞典》에 기술된 '看'의 8가지 의미항목으로 사용된 용례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現代漢語規範用法大詞典》, 《現代漢語詞典》에는 의미항목으로 기술되지 않았지만 '別了, 溫哥華'에서 실제로 사용된 2가지 의미인 '觀賞(賞玩)', '獲得'의 용례를 추가하였다. 이렇게 해서 추출한 '看'의 10가지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使視線接觸人或物
- (2) 觀察, 估計, 判斷
- (3) 看望, 訪問
- (4) 診治
- (5) 決定於
- (6) 留神, 注意
- (7) 對待
- (8) 照料
- (9) 觀賞, 賞玩
- (10) 獲得

17) 그렇다면 어휘에는 고정된 의미가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본고는 어휘에 이미 내재된 의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관점과 어휘의 내부에는 아무 것도 없고 모든 것은 결합을 통한 사용에서 결정된다는 관점의 절충적 입장이다. 즉, 어휘 내부에 의미를 결정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휘의 상태에서는 알 수 없고 결합관계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본다.

18) 캐나다화교 常琳의 소설 《雪后多倫多》를 각색한 22부작 드라마(2003년)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北京 출신의 젊은 남녀 네 명이 Vancouver를 배경으로 겪는 사랑과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민생활의 희망과 그들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잘 그려냈다는 평을 받는다. 상기 드라마 대본은 필자가 이전 학기 '영상중어' 수업할 때 드라마 전편의 대사를 직접 타이핑 작업해 놓은 것이다.

Ⅲ. '看' 의미들 간의 상관성

1. 설문조사 자료 처리

다음으로, 이렇게 드라마에서 추출된 '看'의 의미항목과 그 용례를 설문조사 대상자인 중국인 화자에게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추출한 '看'의 의미항목과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¹⁹⁾

- (1) 留神, 注意
這些東西都是你的, 慢慢吃, 看噎着。
- (2) 對待
我老把你當自己人看, 你怎麼說話呀, 你。
- (3) 使視線接觸人或物
你先到那邊坐等我一會兒, 我還有很多資料需要看哪。
- (4) 觀察, 估計, 判斷
你就看在咱們都是來自首都北京的份兒上, 一定要諒解他。
- (5) 照料
你不會連孩子都看不住吧?
- (6) 決定於
我聲明啊, 我沒什麼。這關鍵是看平平願不願意。
- (7) 看望, 訪問
我最近特忙, 沒騰出空兒去看你父母。
- (8) 獲得
再過兩天, 你看機會告訴羅毅, 就說你看見任曉雪了!
- (9) 觀賞, 賞玩
認真? 你來這兒是爲了看風景, 我來這兒就是爲了要和大洪在一起, 你說咱倆誰對他更認真。
- (10) 診治
你是不是不舒服啊? 用不用我帶你去看醫生啊?

설문조사는 '看'의 각 의미들에 대해 쌍대 비교(paired comparison)하여 점수화

19) 설문조사 대상자에게 제시되는 의미 순서가 의미 간 관련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수록된 '看'의 의미항목의 순서는 무시하고 무작위로 섞어서 제시하였다.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²⁰⁾ 즉, 설문 대상자들에게 '看'의 10가지 의미와 예문을 쌍대적으로 제시하고 의미들 간의 상관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게 했다.²¹⁾ 설문조사의 목적은 '看'의 다양한 의미들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사하여 의미 상관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설문조사는 2009년 7월에 이루어졌다. 2009년에 南開大學 중문과 전공 석사연구생 20명, 타 전공 석사연구생 25명, 중문과 학부생 20명, 타 전공 학부생 15명, 총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n 개 예문을 2개씩 비교했으므로 ${}_n C_r = \frac{{}_n P_r}{r!} = \frac{n!}{r!(n-r)!}$ 에 대입하면 45쌍이라는 대립쌍이 산출된다. 즉, 10개 예문을 쌍대비교법으로 평가했으므로 총 45쌍의 비교평가가 필요하였다. 설문조사지는 <표 1>과 같았다.

20) 쌍대 비교(paired comparison)는 두 항목씩 짝을 지어 비교하는 방식이다. 쌍대 비교법의 장점은 비교가 모호한 항목을 비교하는 데 유리하고 중심화 경향의 평가자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평가항목과 피평가자가 너무 많을 경우 평가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법이 복잡하다.

21) 설문지 항목은 다음과 같은 형식이었다. ①번 예문의 '看'과 ②번 예문의 '看'이 의미적으로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되는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면 1점, 가장 관련이 없다고 느끼면 5점에 체크하라.



	-你是不是不理我啊？用不用我带你去看医生啊？						
40	-我最讨厌你。没理出空儿去看你父母。						
	-再过两天，你看机会去给罗敏，就说你看医生检查了！						
	-我最讨厌你。没理出空儿去看你父母。						
41	-认真？你来这儿是为了看风景，我来这儿就是为了要和天洪在一起。你说咱俩谁对谁要认真。						
	-我最讨厌你。没理出空儿去看你父母。						
42	-你是不是不理我啊？用不用我带你去看医生啊？						
	-再过两天，你看机会去给罗敏，就说你看医生检查了！						
43	-认真？你来这儿是为了看风景，我来这儿就是为了要和天洪在一起。你说咱俩谁对谁要认真。						
	-再过两天，你看机会去给罗敏，就说你看医生检查了！						
44	-你是不是不理我啊？用不用我带你去看医生啊？						
	-再过两天，你看机会去给罗敏，就说你看医生检查了！						
45	-认真？你来这儿是为了看风景，我来这儿就是为了要和天洪在一起。你说咱俩谁对谁要认真。						
	-你是不是不理我啊？用不用我带你去看医生啊？						

〈표 1〉 설문조사지

2. 다차원 척도 분석으로 해석하기

본고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차원 척도 분석이라는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看’의 다양한 의미들을 각각 4분위 그래프에 위치시켜 범주별로 묶을 수 있었다. 다차원 척도 분석은 n 개의 개체들을 대상으로 p 개의 속성을 측정했다고 할 때, 각 개체들은 측정된 p 개의 변수값들에 의해 다차원 공간상에서 점으로 표시될 수 있다. 바로 이 점들 간의 공간적 거리가 개체들 간의 속성 간의 거리가 된다. 이를 통해 유사성이 작은 대상끼리는 다른 차원에 멀리 배치되고 유사성이 큰 대상끼리

는 같은 차원에 가깝게 위치를 정하게 된다.

다차원 척도 분석 과정은 크게 3단계이다. 1단계는 자료수집 단계이다. n개의 개체들을 대상으로 p개의 속성을 측정한다. 2단계는 유사성, 비유사성 측정 단계이다. 유사성, 비유사성은 개체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단계는 다차원 공간상에 개체를 표현하는 단계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체들 간의 거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다차원 공간상에서 개체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다차원 척도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체들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행렬을 이용하여 2차원 공간상에 점으로 표현한다.²²⁾

이상의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공간을 형성하는 평가 대상의 속성과 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看'의 서로 다른 10가지 의미와 용례들이 바로 다차원 척도 분석을 하기 위한 평가 대상의 속성과 수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본고의 설문조사 과정은 다차원 척도 분석의 2단계인 유사성, 비유사성 측정 단계에 해당된다. 본고의 설문조사는 '看' 각 의미들을 쌍대 비교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 유사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의미들 사이에 관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1점에서 5점까지 상대적인 점수를 매기게 하였다.

본고에서는 대상을 공간상에 표현하는 마지막 단계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의 자료값을 복잡한 수식을 거쳐 좌표값으로 환산하였다. 이는 '看' 의미들의 공간적 위치를 좌표값으로 계산했다는 뜻인데 <표 2>과 같다.

22)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공식은 다차원 공간에서 두 점간의 거리를 알아내는 공식이다. 유클리디안 거리 공식을 사용하면 두 개체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두 점을 $(p_1, p_2, p_3, p_4, \dots)$ 와 $(q_1, q_2, q_3, q_4, \dots)$ 로 표기한 경우 유클리디안 거리 공식은 다음과 같다.

$$\sqrt{(p_1 - q_1)^2 + (p_2 - q_2)^2 + \dots + (p_n - q_n)^2} = \sqrt{\sum_{i=1}^n (p_i - q_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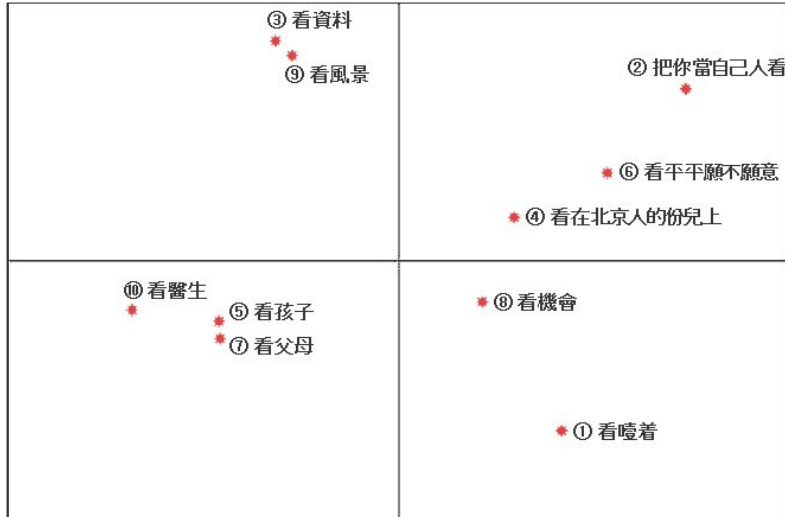
‘看’ 의미	좌표값	
	X축	Y축
①留神, 注意	0.8751	-1.2825
②對待	1.4934	1.3087
③使視線接觸人或物	-0.6152	1.7152
④觀察, 估計, 判斷	0.6257	0.2975
⑤照料	-0.9232	-0.4753
⑥決定於	1.1068	0.6659
⑦看望, 訪問	-0.8848	-0.5854
⑧獲得	0.4416	-0.2852
⑨觀賞, 賞玩	-0.5384	1.5727
⑩診治	-1.3848	-0.3808

〈표 2〉 ‘看’ 각 의미들의 좌표값

〈표 2〉의 좌표값을 도출하기까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1단계는, 본고는 쌍대비교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므로, ‘看’의 10개 용례에 대해 총 45개의 쌍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5점 스케일을 적용한 후 그 획득점수의 평균을 구한다. 그 다음 10개 평가 대상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행렬을 구한다. 2단계는 구하고자 하는 맵 상에서 평가 대상들 간의 거리를 구한다. 그 다음 그것을 가상적인 행렬로 만든다. 3단계는 1단계의 행렬과 2단계의 행렬의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좌표를 도출한다. 이 과정에는 복잡한 수학적 계산과 통계적 수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상술한 세 단계를 거쳐 도출된 〈표 2〉의 좌표값을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4분위 좌표상에 옮기면 〈그림 1〉과 같은 그림을 얻을 수 있다.²³⁾ 즉 〈표 2〉의 좌표값을 좌표상에 그리면 〈그림 1〉에서와 같이 평가 대상들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23) 본고에서는 다차원 척도 분석을 적용하기 위한 통계 소프트웨어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는 SPSS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처리를 위한 수학적 계산과 통계적 수식 및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의 기술적인 조작은 통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였다. 각 개체간 거리를 평면상에 나타내기 위해 SPSS에서는 복잡한 통계적 수식을 사용하여 각 개체간 거리를 계산하게 된다. 각 거리를 계산하여 2차원에 나타내기 위해서 편의상 차원1(X축), 차원2(Y축)로 나누고, 0을 기준으로 선을 긋는다. 여기에서 X축, Y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며 중요한 것은 각 개체들 간의 상대적 거리이다.



〈그림 1〉 '看' 의미들의 4분위 위치

〈그림 1〉은 10가지 '看'의 의미들 간의 관련성을 공간상의 거리 개념으로 전환하여 '看'의 각 의미들이 어떤 영역에 위치하게 되는가를 보여 준다.²⁴⁾ 〈그림 1〉을 보면, 우선 2개의 축을 기준으로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10가지 '看'의 의미들은 각기 4개 분위 가운데 한 곳으로 들어간다. 이때 동일한 분위 영역 안에 있는 '看'의 의미들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다른 분위 영역 안에 있는 '看'의 의미들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각 영역 속에는 유사성이 높은 의미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看'의 의미가 상호간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실제 의미들 사이의 유사성 정도가 어떠한지 그 공간적 거리를 통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언어 사용자들이 '看'의 여러 의미들을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다차원 척도 분석은 분석 결과를 공간상의 그림 형태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적인 표현 방법은 분석 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차원 척도 분석은 여러 개체 간의 상대적 거리를 구하고 그것을 평면상에 나타내어 각 개체들 간의 상대적인 거리를 파악하여, 거리가 가까우면 유사한 개체로

24) X축과 Y축에 직각으로 선을 내리는 경우 각 축을 만나는 지점이 그 평가대상의 속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파악하고 거리가 멀면 비교적 상이한 개체로 파악하는 분석 도구이다. 이는 개체 간의 '상대적 관련성'을 파악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개체들이 다른 영역에 있더라도 '전혀 다른' 또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보다는 '비교적 상이한' 또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이를 근거로 보면 <그림 1>에서 ⑩'看醫生'과 ②'把你當自己人看'처럼 둘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看醫生'의 '看' 의미와 '把你當自己人看'의 '看' 의미 간에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이지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중국인 화자들은 '看資料'와 '看風景'에서의 '看'이 서로 의미적으로 상관성이 높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看醫生', '看孩子', '看父母'에서의 '看'이 상호간 관련성이 높다고 인지한다. 나머지 개체들 간 관계도 동일한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개체 간 거리가 멀수록 그 의미 사이의 관련성은 멀어진다. 예를 들면 '看資料'와 '看噎着'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看資料'의 '看'과 '看噎着'의 '看'은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체 간 거리가 먼데도 즉, 의미적 관련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도 왜 동음이의어로 처리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동음이의어로 처리되지 않고 모두 하나의 '看' 의미항목 아래 수록된다는 것은 Wittgenstein(1958)의 가족 닮음 유사성을 고려해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Wittgenstein는 게임이론에서 '게임'이라는 범주에 속한 개체들 모두를 관통하는 속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하여 '가족 닮음'이 어떤 범주를 구성하는 원리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²⁵⁾

덧붙여 한 가지 강조할 점은 <그림 1>이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구분은 단지 시각적인 구분일 뿐, 각 영역과 영역 간의 관계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차원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역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의

25) Wittgenstein(1958)이 말한 가족 닮음(family resemblance) 유사성이란 가족들 사이에는 체격, 용모, 눈 색깔, 기질 등 다양한 종류의 닮음이 존재하지만 특정한 자질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몇몇 자질만이 중첩되고 교차된다는 것이다.

미들 사이의 연관성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看'의 의미범주와 범주화 과정

1. '看'의 범주원형

《現代漢語規範用法大詞典》과 《現代漢語詞典》에 수록된 '看'의 여러 의미항목 가운데 실제적인 시각 동작을 의미하는 것은 '使視線接觸人或物' 하나뿐이다.

- (1) 看星星多沒勁呀。我要是他呀，我就看對面屋子裏邊那個人。
- (2) 我沒有看到那些我不該看到的東西，再說你也很小心，老關着窗戶。

대부분의 사전에서 상기 예문의 '看', 즉 '사람의 눈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목격하다'를 '看'의 기본의미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은 '別了, 溫哥華'에 출현하는 '看'의 용례들인데 '사람의 눈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목격하다'라는 의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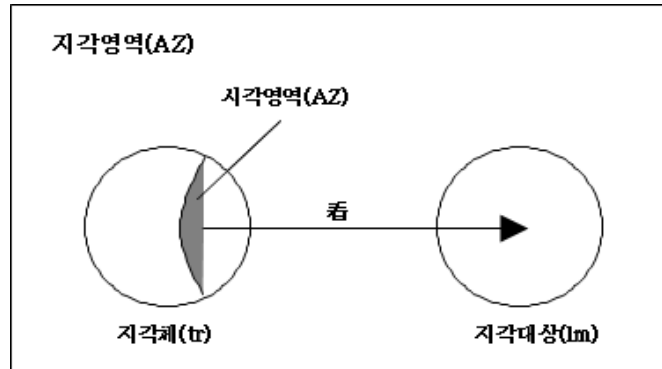
- (3) 你是不是不舒服啊? 用不用我帶你去看醫生啊?
- (4) 你就看在咱們都是來自首都北京的份兒上, 一定要諒解他。
- (5) 我看你挺顯大的, 你有三十七、八了吧。
- (6) 我們都看得出來你有難處。
- (7) 什麼對得起對不起的。不過我還真沒看出來, 你還挺痴情的。
- (8) 我真是不知道你病了, 不然我早過來給你看病了。
- (9) 你在說什麼呢? 婚姻大事當然要看日子嘛。
- (10) 根据你的症狀來看, 病因可能是心理上的。
- (11) 我最近特忙, 沒騰出空兒去看他們。
- (12) 你不會連小孩都看不住吧?
- (13) 他這輩子都沒把錢看重, 可這几年不一樣了。
- (14) 我告訴你, 回去以後我會馬上去看心理醫生的, 真的, 我說到做到。

- (15) 我並不是看你現在的處境趁人之危。
 (16) 我看他倆挺般配的，肯定是一對兒。
 (17) 你年輕，人又在國外，可能沒有把感情的事看得太重。

위에서 (1), (2)의 ‘看’이 눈을 이용한 지각행위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반면, (3)-(17)의 ‘看’은 단순한 신체적 지각을 넘어 그 지각행위를 통한 정신적 인지활동이나 동작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인간의 시각이란 것은 시간 공간의 물리적인 제약을 받기 마련이므로 구체적인 대상만을 지각할 수 있는 반면, (3)-(17)의 ‘看’은 물리적인 시간 공간의 범위를 뛰어넘어 추상적인 지각대상까지도 인지하고 있다. 이는 언어 사용자의 인지영역 범위가 시각영역에서 지각영역으로 확대되었음을 말한다.

위에서 보듯이 ‘看’의 기본의미로는 (1)-(17)까지의 용례들을 다 포함할 수 없다. 이에 본고는 모든 예를 아우르는 개념적 공통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범주원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²⁶⁾ 위에서 살펴 본 의미들을 종합해 볼 때, ‘看’이 갖는 공통적 개념은 ‘언어 사용자가 지각영역을 통해 대상을 알다’이다. 다시 말해, ‘看’이라는 동작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각영역 속에 없던 대상이 동작이 일어난 후에는 언어 사용자의 지각영역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看’의 범주원형을 ‘언어 사용자가 지각영역을 통해 대상을 알다’로 설정하면 상기의 다양한 예문의 ‘看’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看’의 범주원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6) ‘범주원형’은 원래 Langacker(1991)가 의미망 모형으로 run의 의미관계를 기술할 때 사용한 용어이다. 그는 원형의미와 범주원형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는데, 본고는 ‘범주 안의 의미들이 가지는 개념적 공통성’이라는 의미에서 범주원형이라는 용어를 차용해 사용했다.



〈그림 2〉 '看'의 범주원형

〈그림 2〉에서 지각영역이란 물리적인 시각영역과 심리적인 시각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영역을 말한다. Langacker(1987,1991)는 윤곽(profile)으로 참여하는 지각체와 지각대상을 각각 탄도체(tr: trajector)와 지표(lm: landmark)로 나타내었다. 탄도체는 성질을 기술하거나 움직임을 추적하는 주체가 되고 지표는 그러한 행위의 기준이 된다.²⁷⁾

2. '看'의 네 가지 의미 범주

원형의미(prototype meaning)란 다의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를 말한다. 확장의미(extended meaning)란 원형의미가 파생되고 전이된 의미를 말한다.²⁸⁾ 임지룡(1997)은 낱말은 본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문맥이나 상황에 사용되면서 단순한 문맥적 변이로 포괄할 수 없을 때 의미

27) 인지문법에서는 가장 현저성이 높은 참여자를 탄도체(주어)로 정의하고 두 번째로 현저성이 높은 참여자를 지표(목적어)로 정의한다. 또한, 윤곽에서 문장의 실제 의미에 기여하는 부분만을 설명하기 위해 활성역(AZ: active zone)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활성역은 특정한 관계에 대해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하게 관여하는 탄도체나 지표의 부분이다. 어떤 개체가 의미 구조의 서술에 포함될 때 그 개체의 특정한 측면, 즉 활성역만이 그 관계에 참여한다고 본다. Langacker, R.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1》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김종도 역 《인지문법의 토대 I: 이론적 선행 조건들》(서울, 박이정, 1999), 228쪽 참조.

28) '확장의미'에 대해 중국 어휘학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引伸義이다.

확장이 일어난다고 했다. 원형의미는 복잡한 의미망 속에서도 가장 활성화되기 쉬운 층위에 있다. 따라서 원형의미는 확장된 의미에 비해 먼저 쉽게 인지되며 사용 빈도 또한 높아 대부분 사전에 첫 번째 항목으로 수록된다. 본고가 이용한 언어자료 '別了, 溫哥華'에서 '看'과 관련하여 총 273개의 예문을 추출, 분석한 결과 '看'의 다양한 쓰임 중 '사람의 눈을 통해 구체적인 대상(사람, 동물, 사물)이 시각영역 속으로 목격되다'라는 원형의미 용법이 143번이나 사용되어 가장 큰 비율(52.38%)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확장의미는 발화나 문맥에서 쓰인 언어 사용자의 경험적 인지 태도에 따라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게다가 '看'은 다른 지각동사 '聽' '聞' 등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다양한 의미확장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세계를 인식하기 마련인데 인간의 인지과정은 주로 시각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므로 감각기관 중 시각영역을 통해 대상을 인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동사 '聽'이나 '聞'은 인간의 청각영역과 후각영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상을 인식하고 지각하는데 있어 그 범위가 한정적인 반면, '看'은 '聽' '聞' 보다 범위가 훨씬 더 포괄적이며 다양하다. 따라서 지각동사 '看'은 다양한 인지 각도와 방법에 따라 다양한 비유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인지적 관점에서는 언어의 의미는 인간의 다양한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파악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신체적 경험'이라 함은 우리 몸의 성질, 유전적으로 계승된 능력, 사회 문화적 조직에 걸친 광범위한 인간 경험의 총체를 말한다. 신체적 경험은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물리적 개념을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라는 비유적 기제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도 발생시킨다. 즉, 신체적 경험에 바탕을 둔 비유작용을 통해 우리는 경험을 지각하고 이해하고 나아가 다양한 의미로 확장해 나간다.²⁹⁾

29) 인간은 유사성(similarity)과 인접성(contiguity)의 인지능력에 의해 기존 낱말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유사성의 인지능력이라 것은 대상 간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 곧 은유로써 기존 낱말의 대상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면 "길동이는 사자다."는 '길동'이와 '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용감함'이라는 유사성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인접성의 인지능력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대상을 관련시키는 능력, 곧 환유로써 기존 낱말의 대상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면 "냄비가 끓었다."는 냄비 속의 '내용물'이 끓었다는 공간적 인접성에 의한 것이다.

본고는 앞서 '看'의 다의적 의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았다. <그림 1>은 10가지 '看'의 의미들 간의 관련성을 공간상의 거리 개념으로 전환하여 보여 준다.

본고는 <그림 1>에서 '看'이 나타내는 각 영역별로 의미들의 개념적 공통점을 찾아보니 '지각', '판단', '수행', '체험'이라는 네 가지 의미범주가 있었다. 즉, 동일한 영역 내에 있는 '看'의 의미들은 '지각', '판단', '수행', '체험' 중 어느 하나로 범주화될 수 있었다. 범주화의 기본 목적은 불분명하게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유형별로 묶음으로써 단위를 형성하고 각 단위에 유사성 또는 변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음은 의미범주별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각각 '지각', '판단', '수행', '체험'으로 범주화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1) '지각' 의미 범주

- (1) 你先到那邊坐等我一會兒，我還有很多資料需要看哪。
- (2) 你來這兒是爲了看風景，我來這兒就是爲了要和大洪在一起，你說咱倆誰對他更認真。
- (3) 我都是晚上看書，特有效率。
- (4) 我不知道中獎了啊，今天看報紙才知道！
- (5) 今天早上看新聞突然發現我們的總理真的老了。

상기 예문에서는 '看'이 지시하는 동작이 일어나면 언어 사용자가 인지하는 시각 영역 속에 지각 대상인 '자료, 풍경, 책, 신문, 뉴스'가 들어와 '대상을 지각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언어 사용자가 지각영역을 통해 대상을 인지하다'라는 '看'의 범주원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서 '看'을 좀 더 살펴보면, (1)-(5) '看'은 단순히 눈으로 지각하는 신호처리 단계의 지각행위가 아니라 신호처리 단계를 거친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는 상징처리의 인식행위를 의미한다. 신호처리(signal processing)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신체적 지각능력에 근거하여 지각적 자극으로서의 신호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징처리(symbol processing)는 그 신호의 형태와 의미로 구성된 상징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감각으로 지각된 형태가 갖는 의미를 얻어내는 능력

은 처리자의 지식이나 추론 능력 등에 근거한다고 본다.³⁰⁾ 상징처리는 신호를 지각한 다음 단계의 과정이기 때문에 신호처리 과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1)-(5) '看'은 지각주체가 시각기관인 눈을 통하여 외부세계의 사물의 형상을 보고 인지하여 대뇌기관에 전달하면 다음 단계에서 뇌신경에 전달된 사물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1)-(5)는 비유의 기제 중 환유의 원리가 작용하여 대상의 외형을 목격하는 과정에서 확장되어 그 내용을 파악하는 지각과정으로 의미가 전이되어 사용되고 있다. 즉, '看'의 범주원형을 바탕으로 문맥에 따라 지각대상이 구체적인 대상에서 '내용'으로 활성역이 전환되어 '목격'의 원형의 의미가 '내용을 지각'하는 의미로 확장 전이되고 있다.

2) '판단' 의미 범주

- (1) 我老把你當自己人看, 你怎麼說話呀, 你。
- (2) 我聲明啊, 我沒什麼。這關鍵是看平平願不願意。
- (3) 你就看在咱們都是來自首都北京的份兒上, 一定要諒解他。
- (4) 我並不是看你現在的處境趁人之危。
- (5) 根据你的症狀來看, 病因可能是心理上的。

상기 예문에서 '看'이 지시하는 동작이 일어나면 지각대상이 추리사고영역과 관련되어 확장되어 시각영역이 판단영역으로 추상화되어 인지된다. (1)의 '看'은 '자기네 사람'으로 판단하여 '대하다, 다루다'의 의미이며, (2)의 '看'은 平平의 생각이 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의거가 된다는 뜻이다. (3)의 '看'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로써 '동향인'인 것을 판단 근거로 제시한다. (4)의 '看'은 시각영역 속에 '처지'가 들어와 '처지나 상황을 보고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5)의 '看' 역시 시각영역 속에 '증상'이 들어와 '증상을 보고 판단하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상기 예문의 '看'은 시각적 지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공감각적 의미를 갖는다. 즉, 구체적인 대상을 눈으

30) 지인영 <영어지각동사의 다의성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2003년 제47권 1호, 192쪽 참조.

로 지각한 것만이 아니라 대상이나 상황을 신호로 감지하고 그것을 근거로 추론하고 판단한다는 의미다. 지각주체가 눈을 통하여 외부세계 사물의 형상을 보고 인지하여 대뇌기관에 전달하면 다음 단계에서 뇌신경에 전달된 사물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한 후 그것을 근거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우리는 보통 지각동사를 인식동사와 연쇄된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지각작용이 인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주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보고 듣고 느끼는 신체적인 지각을 통해 외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인지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모든 지각동사가 동일한 인지과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러 지각 가운데 '보는' 것이 가장 정신영역의 인식작용을 강하게 나타낼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은 다른 지각 행위들보다 '보는' 행위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이는 시각화됐을 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 보면 '보는 행위'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여러 방법들 중 가장 두드러진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한 가지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사실과의 관계 추론, 유추를 통해 제 3의 사실을 알아내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즉 눈으로 보고, 알고, 이를 판단하는 인식과정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지 경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 예문의 (1), (2), (3)은 <그림 1>에서 각각 ②, ⑥, ④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1>을 보면 ⑥, ④간의 '看'의 공간상 거리가 각기 ② '看'과의 거리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인데, 이는 ⑥, ④ '看'의 의미 간 상관성이 ② '看'과의 의미 간 상관성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수행' 의미 범주

- (1) 是不是不舒服啊? 用不用我帶你去看醫生啊?
- (2) 你不會連孩子都看不住吧?
- (3) 我最近特忙, 沒騰出空儿去看你父母。
- (4) 他說他現在找了一份工作, 會很忙, 不能常來看我了。
- (5) 我很少去看病人, 但是看病人的時候我都不會講究, 不知道買什麼, 總會手捧一束花。

상기 예문의 ‘看’은 모두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1)-(3)에서 ‘看’이 지시하는 동작이 일어나면 지각대상인 ‘의사, 아이, 부모’가 지각주체의 시각영역으로 들어와 그 대상과 관련된 모종의 일을 수행하는 의미로 파악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4)의 ‘看’은 시각영역 속에 ‘나’가 들어와 사람을 만나는 동작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5)의 ‘看’은 시각영역 속에 ‘환자’가 들어와 문병과 관련된 일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看’에 나타난 ‘수행’의 의미는 범주원형을 바탕으로 지각 판단의 의미에서 더 확장된 형태로 나타난다. ‘看’은 눈에 의한 직접적 지각행위로부터 출발하여 동작을 촉발시키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즉, 의사에게 진찰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를 만나야 하는데 만난다는 것은 눈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를 돌보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람을 만나고 환자를 문병하는 일들 모두 우선적으로 아이, 부모님, 사람, 환자를 먼저 눈으로 지각해야 가능하다. 여기에서 ‘看’은 첫 단계의 지각기관에서 눈을 통하여 대상을 보고 인지하여 다음 단계로 전달하면 대뇌기관에 대상의 형상을 알고 이해한 후, 다음 단계인 동작기관으로 전달하여 신체를 직접 움직여 사람을 진찰하고 보살피고 방문하고 만나고 문병하기 위하여 ‘보는’ 동작을 나타낸다.

상기 예문 모두 지각대상의 자리에 사람이 와서 동작주에 의한 ‘진찰, 보살핌, 방문, 만남, 문병’의 의미로 확장되었으며 환유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상기 예문의 (1), (2), (3)은 <그림 1>에서 각각 ⑩, ⑤, ⑦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1>에서 ⑤와 ⑦의 ‘看’의 공간상 거리가 각기 ⑩ ‘看’과의 거리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아이를 보며 돌보다’와 ‘부모님을 찾아뵙다’ 간의 의미 연관성이 각각 ‘의사를 만나보고 진찰하다’ 간의 의미 연관성보다 높다는 것을 뜻한다.

4) ‘체험’ 의미 범주

- (1) 再過兩天, 你看機會告訴羅毅, 就說你看見任曉雪了!
- (2) 這些東西都是你的, 慢慢吃, 看噎着。

상기 예문의 ‘看’은 모두 어떤 일을 경험해 본 것과 관련된 체험 의미이다. 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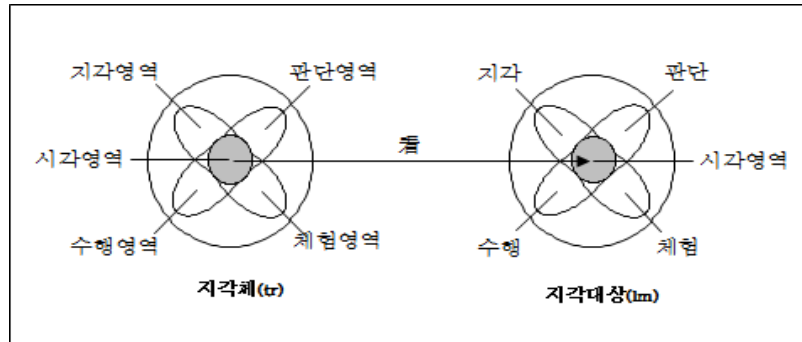
체험의 지각대상은 구체적인 대상일 수도 추상적인 대상일 수도 있고, 나아가 특정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즉, '看'이 지시하는 동작이 일어나면 언어 사용자의 시각영역으로 '기회'와 같은 추상적인 대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목 메임'과 같은 특정 상황이 올 수도 있다. '看'은 시각기관에서 출발하여 대뇌기관으로 이어져 그동안의 경험과 관련되어 기회를 포착하거나 또는 음식이 목이 메었던 신체적인 경험과 관련하여 조심하는 동작을 의미하게 된다.

본고의 언어자료를 분석한 결과, '看'과 관련된 총 273개의 예문 가운데 '체험'의 의미범주에 속하는 용례는 단지 2개에 불과했다. 이것은 '看'의 확장의미 가운데 '체험'의 의미가 가장 주변적 보기에 해당되며 빈도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모두 다른 의미에 비해 매우 덜 현저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림 1>을 살펴보면 '看機會'의 '看'과 '看噎着'의 '看' 사이의 의미적 거리가 다른 동일한 분위기에서의 '看' 의미들 간의 공간적 거리와 비교할 때 가장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록 '看機會'와 '看噎着'가 의미 범주 상으로는 동일 영역에 속하기는 하지만, '기회를 포착하다'와 '목이 메지 않도록 조심하다'는 의미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看'은 눈에 의한 직접적 지각행위는 신호처리 과정을 거치고, 지각된 신호의 상징적 의미를 처리하는 상징처리 과정을 통한 직접적인 지식습득과 이해과정 단계를 거쳐, 지각한 내용에 근거해 추론을 통해 얻은 간접적인 지식습득과 이해, 인식, 판단의 단계까지 나타내고, 더 나아가 모종의 일을 수행하고 체험하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적인 인식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看'의 의미 범주를 요약하면 범주원형 도식을 바탕으로 동일한 바탕위에 서로 다른 활성역(Active zone)에 윤곽이 부여되면서 다양한 인지과정을 통해 의미확장을 이룬다. 우리의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목적과 지각'이라는 '看'의 범주원형에서 환유와 은유를 통해 서로 의미적 관련성을 맺으면서 각각 '지각' '판단' '수행' '체험'의 방향으로 인지과정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각동사 '看'의 다의적 인지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看'의 다의적 인지과정

〈그림 3〉에서 시각영역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근원적인 활성화역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신체적 경험 중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시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확장된 의미에 관여하는 활성화역은 4가지, 즉 '지각영역', '판단영역', '수행영역', '체험영역'이 있다. 〈그림 3〉에서 지각체(tr)는 '看'이 지시하는 동작을 추적하는 주체가 된다. 이 지각체는 항상 특정한 관계에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맡는 부분인 활성화역 내에서만 작용한다. 지각대상(lm)은 '看'이 지시하는 동작이 추적하는 대상, 즉 '지각', '판단', '수행', '체험'이 된다. 바꿔 말하면, 지각체는 지각영역이라는 활성화역 내에서는 '지각'이라는 대상만을 윤곽부여(profileing)하고, 판단영역 내에서는 '판단'이라는 대상에만 윤곽부여하고, 수행영역 내에서는 '수행'의 대상만을 윤곽부여하고, 체험영역 내에서는 '체험'이라는 대상에만 윤곽부여한다.

인지의미론에서는 의미확장에 있어서 추상적 요소를 추출하고 화자의 개념적 요소에 대한 초점화를 밝히기 위해 추상적인 도식(schema)을 자주 사용한다. 도식의 특정 부분에 초점화가 이루어지면 즉, 특정 요소에 윤곽부여되면 다의어의 여러 의미들이 활성화된다. 사실, 다의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다의어가 다양한 틀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어휘의 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휘의 의미와 기능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개별적인 어휘의 의미구조는 해당 어휘가 상기시킨 틀을 바탕으로 그 틀의 특정 요소에 윤곽부여된 전체 형상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관련된 다의어는 동일한 틀을 상기시키지만, 해당 틀의 각기 다른 틀 요소에 윤곽부여 함으로써 의미들 간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즉, 다의어의 의미확장 문제는 동일한 틀 안에서의 윤곽부여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하나의 어휘는 상황과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다의어의 여러 의미 변이형들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들 사이를 연결지어 주는 관계는 무엇인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인간의 여러 감각적 경험 중에서 높은 사용 빈도수를 보이며 다양한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는 동사 '看'을 대상으로 통계기법인 다차원 척도 분석을 통해 다의적인 의미 양상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고는 논의의 순서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에서는 동사 '看'의 다의적 의미를 수집하기 위해 사전에 기술된 의미와 언어자료에서 문맥으로 실현된 의미를 파악했다. 본고는 《現代漢語規範用法大詞典》과 《現代漢語詞典》에 수록된 '看'의 의미와 용례를 참조하였다. 또한, 동사 '看'의 실제 용례에 대한 언어자료 분석을 위해 중국 드라마 '別了, 溫哥華'에서 그 용례들을 추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드라마 언어자료 분석을 통해 문맥에서 선택되는 '看'의 의미를 파악하여 설문조사 대상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이는 파악된 다의적 의미들 사이의 상관정도를 알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看'의 각 의미들을 쌍대 비교하는 방식으로 점수화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언어 사용자가 각 의미들 사이의 관련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看'의 다의적 의미들 간의 관련성을 알기 위해 점수화된 설문조사 결과를 다차원 척도 분석이라는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공간 위에 거리 개념으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즉, 설문조사 결과를 좌표값으로 환산하고 다시 환산된 좌표값을 4분위 좌표상에 옮기면 '看'의 각 의미들이 어떤 영역에 위치하게 되는가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중국어 화자들이 '看'의 여러 의미들을 서로 어떻게 연관시키고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4분위 영역에 위치하는 '看'의 각 의미들 간의 개념적 의미

범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각’, ‘판단’, ‘수행’, ‘체험’의 네 가지 의미범주로 묶을 수 있었고, 개념적 요소에 대한 초점화를 위해 범주화된 의미의 공통성을 추상적으로 도식화하였다. 즉, 각각의 의미들이 자체로 존재하고 동시에 그 의미들이 하나의 범주로 인식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개념적 공통성이 무엇인지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단계를 통해 어휘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인식이 의미를 범주화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관여하는지 엿볼 수 있었다.

본고를 통해 어휘의 다의적 의미확장은 언어 사용자의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언어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일반 인지능력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재차 느낄 수 있었다.

【參考文獻】

- 김동환 <틀의미론과 의미구조>; 《언어과학연구》 16. 1999.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의미》 서울, 태학사, 2005.
 김명숙 <영어 영향동사의 범주화 현상에 관한 연구>; 《담화와 인지》 13. 2006.
 김진우 《인지언어학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1999.
 김영석 《영어형태론》 서울, 한국문화사, 1998.
 박종한 <인지문법에 의한 현대중국어의 다의어 연구>; 《중국언어연구》 5. 1997.
 박윤조 <현대중국어 ‘보다’류 동사의 어휘구조와 의미결합의 특징 연구>; 《인문과학연구》 11. 2006.
 변영수 <‘오르다’의 의미 확장 연구>; 《겨레어문학》 39. 2007.
 오예옥 《형식의미론과 인지의미론에서 본 어휘의미론》 서울, 역락, 2004.
 이경수 <동사 ‘지르다’의 의미 확장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한국어의미학》 30. 2009.
 이기동 <날말의 의미와 범주화>; 《동방학지》 50. 1986.
 이민우 <국어 동사 ‘지다’의 다의적 의미관계 분석>; 《한국어의미학》 27. 2008.
 이원경 <지각동사의 논항구조와 의미분석>; 《인문과학연구》 11. 2002.
 이정희 <漢韓“吃/먹다”詞義擴展認知研究>; 《중국언어연구》 24. 2007.
 임지룡 <유상성의 인지적 의미분석>; 《문학과 언어》 16. 1995.
 임지룡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1997.
 임지룡 <다의어 ‘사다’ ‘팔다’의 인지의미론적 분석>; 《국어국문학》 129. 2001.

- 임지룡 <다의어의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어미학》 28. 2009.
- 장미라 <'있다'의 의미 확장과 다의어 체계>: 《인문학연구》 9. 2005.
- 전상범 《형태론》 서울, 한신문화사, 1995.
- 정병철 <경험적 상관성에 기반한 동사의 의미 확장>: 《한국어어미학》 22. 2007.
- 정성륜 《어휘조직론》 서울, 태학사, 1998.
- 정시호 《어휘장이론연구》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94.
- 정영식 <영어동사의 다의적인 의미-인지문법이론을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10. 1997.
- 지인영 <영어지각동사의 다의성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47. 2003.
- Cruse, D. A.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임지룡, 윤희수 옮김 《어휘의미론》 대구, 경북대학교, 1989.
- Bybee, J.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Benjamins, 1985, 이성하, 구현정 역 《형태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0.
- Fillmore, C. J. 《The Case for Case》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by E. Bach and R. T. Harm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8, 胡明揚譯 《“格”辯》北京, 商務印書館, 2002.
- Fillmore, C. J. <Some Problems for Case Grammar>: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0. 1971.
- Fillmore, C. J. <Topics in Lexical Semantics>: 《Current Issues in Linguistics Theory》 1. 1977.
- Lakoff, G. &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노양진, 나익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서광사, 1995.
- Lakoff, G. <Cognitive Semantics>: 《Berkeley Cognitive Science Report》 36. 1986.
- Lakoff, G.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이기우 옮김 《인지의미론: 언어에서 본 인간의 마음》 서울, 한국문화사, 1994.
- Langacker, R.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1》 Stand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87, 김종도 역 《인지문법의 토대 I: 이론적 선행 조건들》 서울, 박이정, 1999.
- Langacker, R.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2》 Stand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91, 김종도 역 《인지문법의 토대 II: 기술

- 적 적용》 서울, 박이정, 1999.
- Lyons, J.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Rosch, E.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semantic categ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975, General 104.
- Taylor, J. R.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1989, 조명원, 나익주 옮김 《인지언어학이란 무엇인가?: 언어학과 원형이론》 서울, 한국문화사, 1997.
- Unger, F. & Schmid, H.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Longman, 1996, 임지룡, 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개론》 서울, 태학사, 1998.
- 戴浩一 〈時間順序和漢語的語序〉: 黃河譯 《國外語言學》 1988年 1期.
- 董秀芳 《詞彙化: 漢語雙音詞的衍生和發展》 成都, 四川民族出版社, 2002.
- 劉宁生 〈漢語怎樣表達物體的空間關係〉: 《中國語文》 1994年 3期.
- 沈家煊 〈R.W.Langacker的認知語法〉: 《國外語言學》 1994年 1期.
- 楊成凱 〈Fillmore的格語法理論(下)〉: 《國外語言學》 1986年 3期.
- 於海濤 〈多義範疇理解的語義互參模式〉: 《語言教學與研究》 2003年 4期.

【中文提要】

語言詞匯中很大一部分是一詞多義的，同一个詞有多种意義，并且意義之間有着某種關聯，這減輕了人類記憶的負擔，一詞多義現象是歷史發展的必然。多義詞作為一種非常普遍的現象和人類認知能力密切相關，它的形成符合人們的認知規律。因此一詞多義現象成為認知語言學的研究焦點之一。

本文的目的在于考察基于多維標度分析的“看”一詞多義的語義關係。為此首先，本文對一些中國人進行了一項關於動詞“看”多義之間的相似性程度的問卷調查，問卷提問，“在兩個句子當中‘看’的意義之間有多少相似性？”這是一個收集研究對象對客體間的相似性評價的階段。接着，我們把相似性數據轉換成距離數據并運用多維標度分析得到客體在心理空間中的相對位置坐標或圖像，最后，把數據項集間的關聯關係以可視化的形式進行展示。

本文通過對動詞“看”多義之間的相似性程度的分析得出，“看”的10種不同意

義可歸納爲四種意義范疇，即“知覺”，“判斷”，“履行”和“體驗獲得。

范疇化是人類的基本認知能力，它在認知過程中起到減輕工作負擔作用，這一作用正好與一詞多義的作用不謀而合。我們通過對“看”這四種意義范疇的分析認爲，“看”的確存在一個范疇原型意義，但它的各種意義之間沒有一個共同的語義要素，相反，它們之間的語義聯系是家族相似性聯系。

最後，中國人思維中對於“看”的身體體驗最有代表性的意象圖式有哪個，這個意象圖式如何解釋“看”的語義擴展，本文對此進行了初步的探討。

通過此次考察，我們可以再次確認，“看”各個義項之間的關係不是任意的，身體和思維及詞義之間存在緊密聯系，多義詞的詞義擴展源於人們在客觀世界中的身體體驗，它是通過人類認知手段由一個詞的中心意義或基本意義向其他意義延伸的過程，是人類認知范疇化和概念化的結果。

【主題語】

多維標度分析，多義關係，相似性，意義范疇，詞義擴展

투고일: 2014. 10. 15 / 심사일: 2014.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4. 11. 10